

YG 엔터주 투자 분석

씨에스리 김서정

목차

1. 분석 개요
2. YG 엔터 내부 상황
3. YG 차트 분석
4. Post-BTS의 가능성

1. 분석개요

소녀시대 생각하며 에스엠에 투자한지 3년이 되간다.. 수익 인증ㅋ

88(221.138) | 2011.07.13 17:03:55



소녀시대 팬이 SM주식 투자로
수익률 약 2700%를 달성한 일화

취미를 투자로 연결하는 것도 일종의 테마주로 볼 수 있다.

엔터주에 대한 생각

소속 아티스트의 실적 = 회사의 주가 및 이익의 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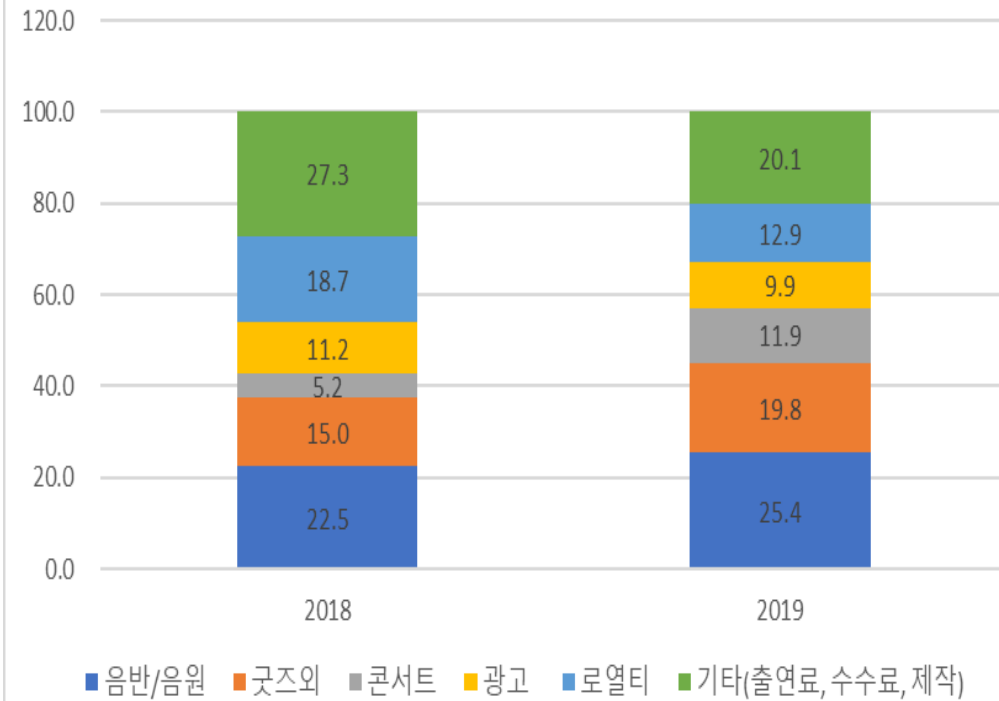
국내 사회 · 정치 · 세계적 트렌드의 영향

엔터주를 성장시킬 POST-BTS에 대한 관심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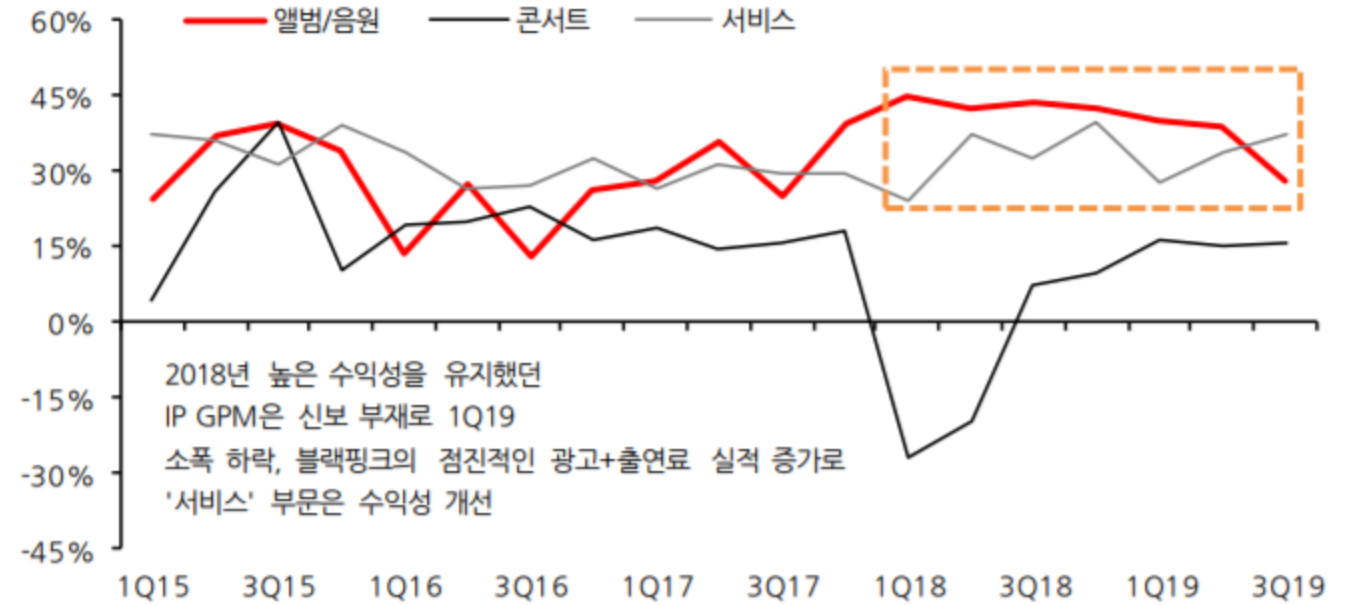
2. YG 엔터 내부 상황

YG 사업부문별 수익구조

YG 2개년 부문별 매출액 비중 (%)



[그림3] 와이지 사업부문별 GP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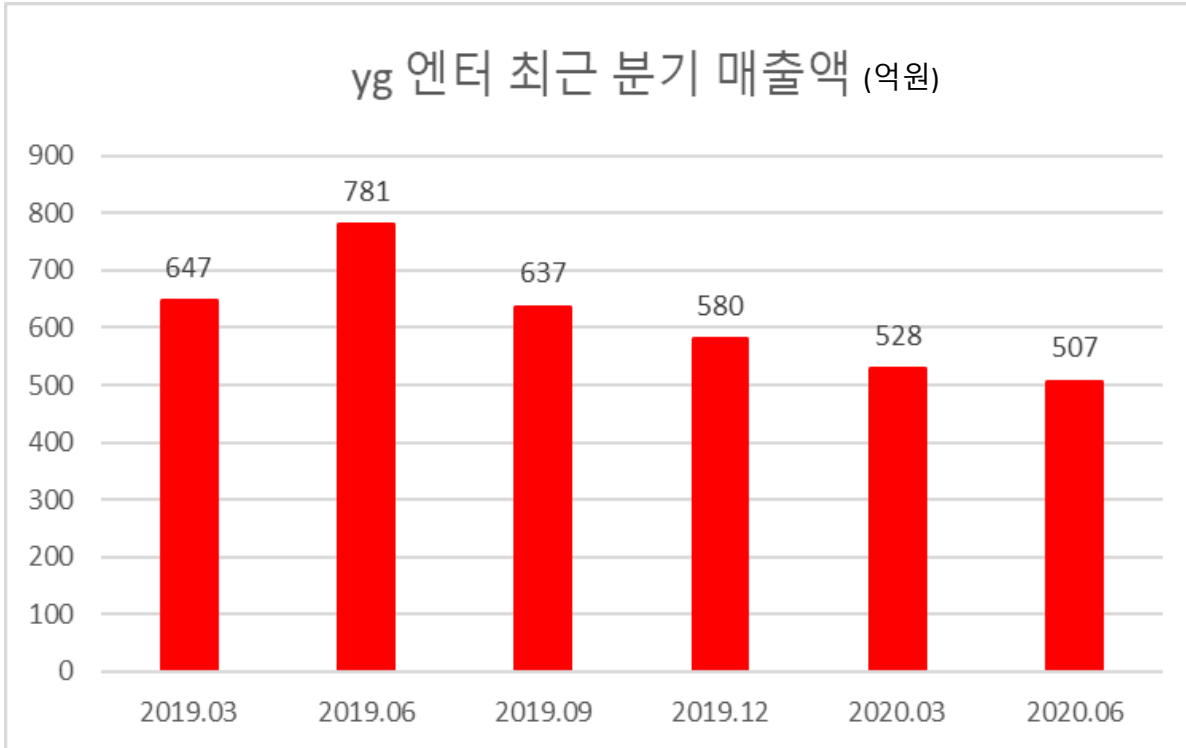


자료: 와이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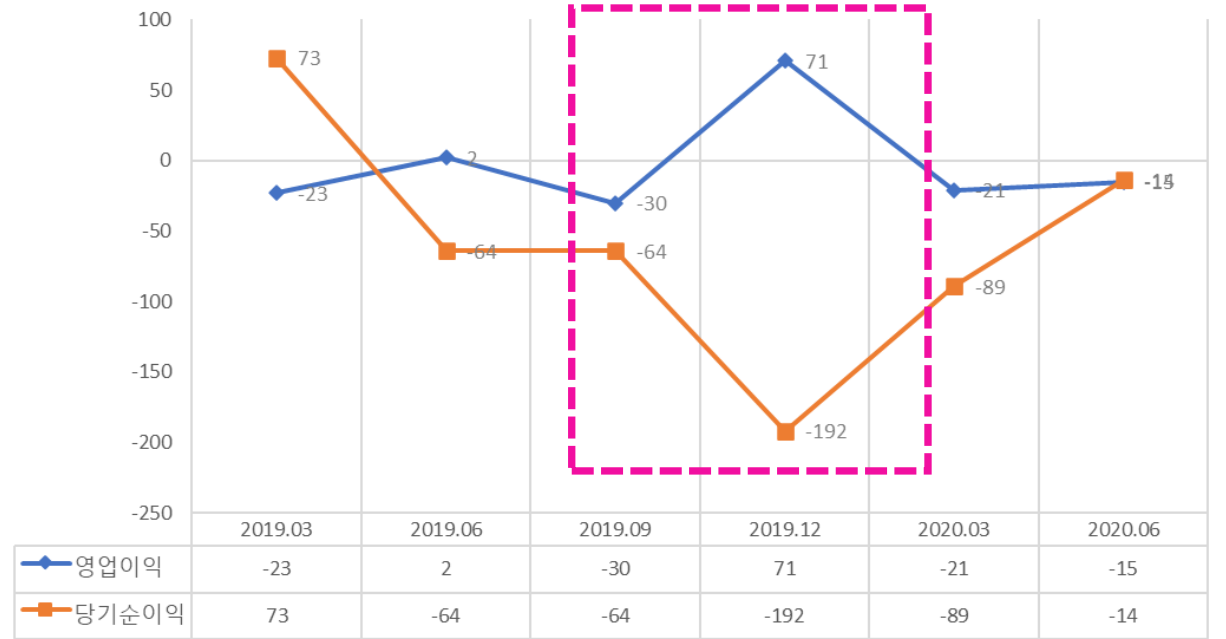
이전까지 YG의 캐시카우였던 빅뱅의 실적이 거의 없음에도 음반/음원 매출이 가장 높은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율 (GPM)을 기록중

YG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yg 엔터 최근 분기 매출액 (억원)



YG엔터 최근 분기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억원)



- 악동뮤지션 9월 앨범 발매
- 블랙핑크 일본 콘서트 등

WHY?

3. YG 차트 분석



YG 엔터 차트 특이점

2019.초~現



○ : 하락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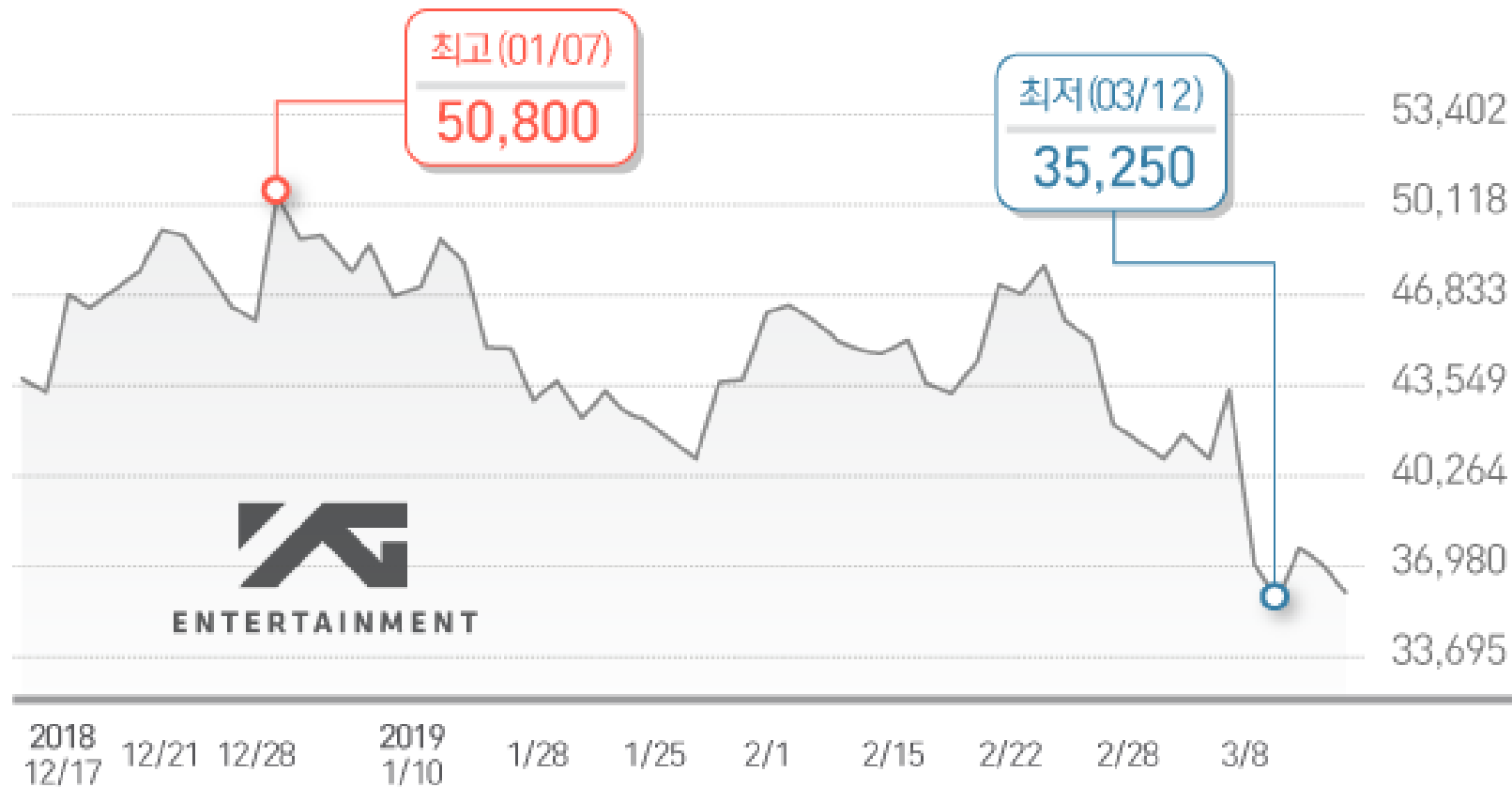
○ : 상승 포인트

○ : 하락 포인트

2019년 1월 이후 (버닝썬게이트 사건이후), YG 주가 추이

YG엔터테인먼트 주가 추이

(단위: 원)



○ : 하락 포인트

2019년 1월이후 (버닝썬게이트 사건이후), YG 주가 추이

2019년 1월초 버닝썬 게이트 이후, 꾸준한 하락세

2019년 2월 25일 8638억 원이었던 YG의 시총이 한 달 만에 6438억 원으로 25.47% 급감
(2200억 원이 단기간에 증발)

2019년 3월 - 52주 신저가(18950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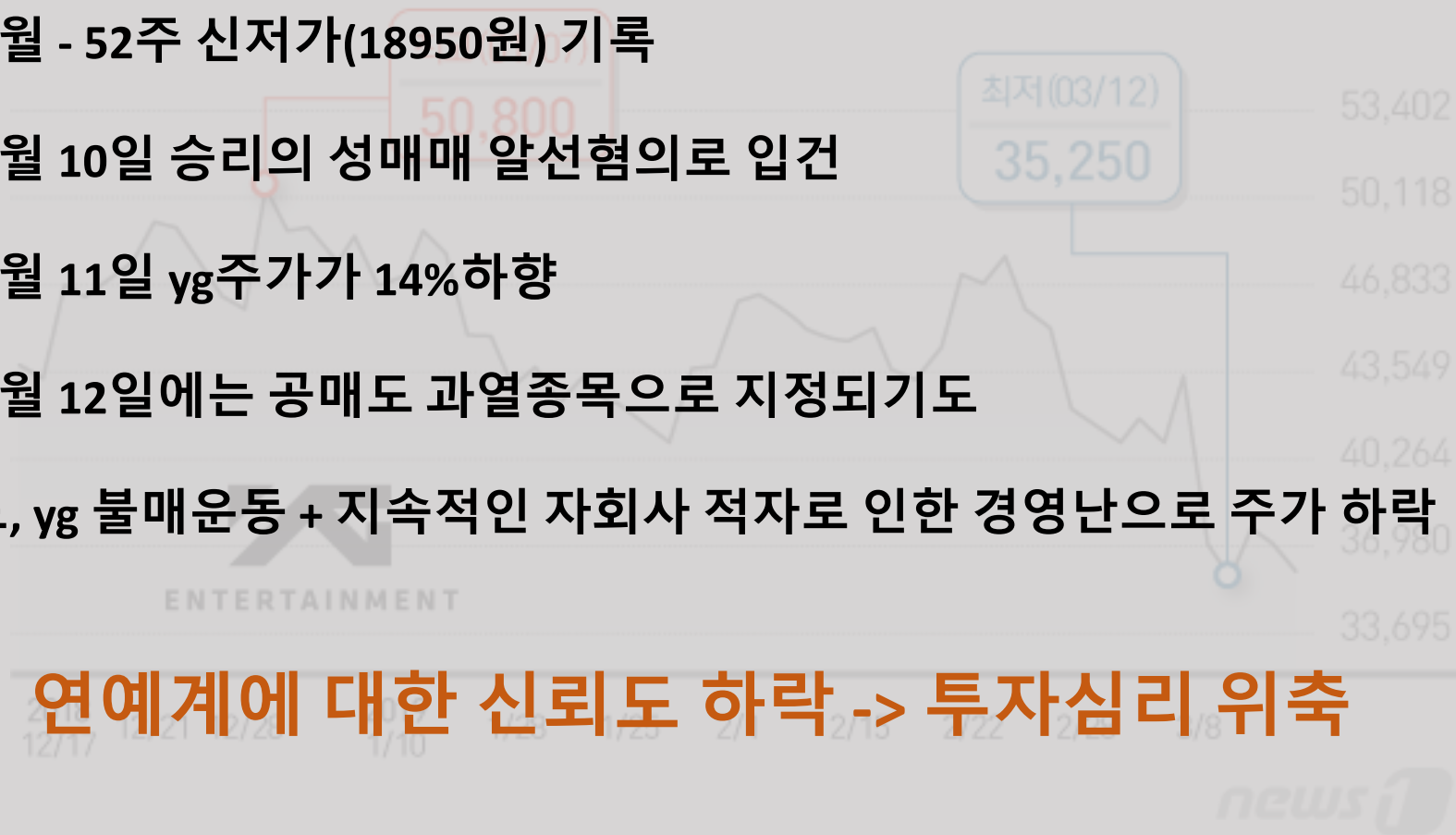
2019년 3월 10일 승리의 성매매 알선혐의로 입건

2019년 3월 11일 yg주가가 14%하향

2019년 3월 12일에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기도

이후에도, yg 불매운동 + 지속적인 자회사 적자로 인한 경영난으로 주가 하락

연예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 -> 투자심리 위축



○ : 하락 포인트

YG뿐만아니라, 대표 엔터주3사 19년도 1,2분기 모두 하락세

시사저널e.

3대 엔터테인먼트 시가총액 증감율 (단위:억원)

	2019-01-02	2019-07-17	증감율
SM	1조1763억원	8516억원	-27.60%
JYP	1조270억원	7347억원	-28.50%
YG	8347억원	5013억원	-39.90%
합계	3조381억원	2조877억원	-31.30%

○ : 하락 포인트

버닝썬 게이트 이후, YG뿐만아니라, 대표 엔터주3사 19년도 1,2분기 모두 하락세





: 하락 포인트

YG 자회사 실적부진 및 계약사 투자금 상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소유한 '루이비통 모엣 헤네시(LVMH)가 2014년 10월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으로 YG에 50만3588주 투자

5년 뒤인 상환 시점에 YG의 주가가 4만 3,574 원을 넘어서면 투자금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 2%의 이자를 더해 약 670억 원가량을 상환 받는다는 조건

YG는 LVMH로부터 610억원을 투자받아, 화장품·요식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

-> YG 플러스의 코드코스메(화장품), YG푸즈(요식업)

당시 매입 단가는 주당 4만410원

*상환전환우선주 :

채권처럼 만기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이나 인수합병시, 잔여재산이나 매각대금 분배를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진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종류주식

○ : 하락 포인트

YG 자회사 실적부진 및 계약사 투자금 상환

YG 플러스의 코드코스메(화장품), YG푸즈

YG 푸즈 : 손실액 21억원 (전년 동기대비 55.41%증가)

코드코스메 : 2019년 3분기까지 당기 손실액 26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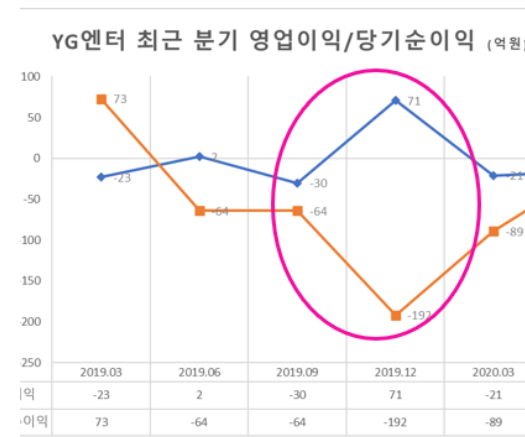
2019년 연결기준 순손실 250억원
별도기준 순손실 규모 133억원

상환시점인 2019년 10월 당시 주가는 25000원대

LVMH에 674억원 상환 (YG 분기 매출액과 비슷한 정도)

(LVMH는 투자액 상환후에도 총 74억원 이상 평가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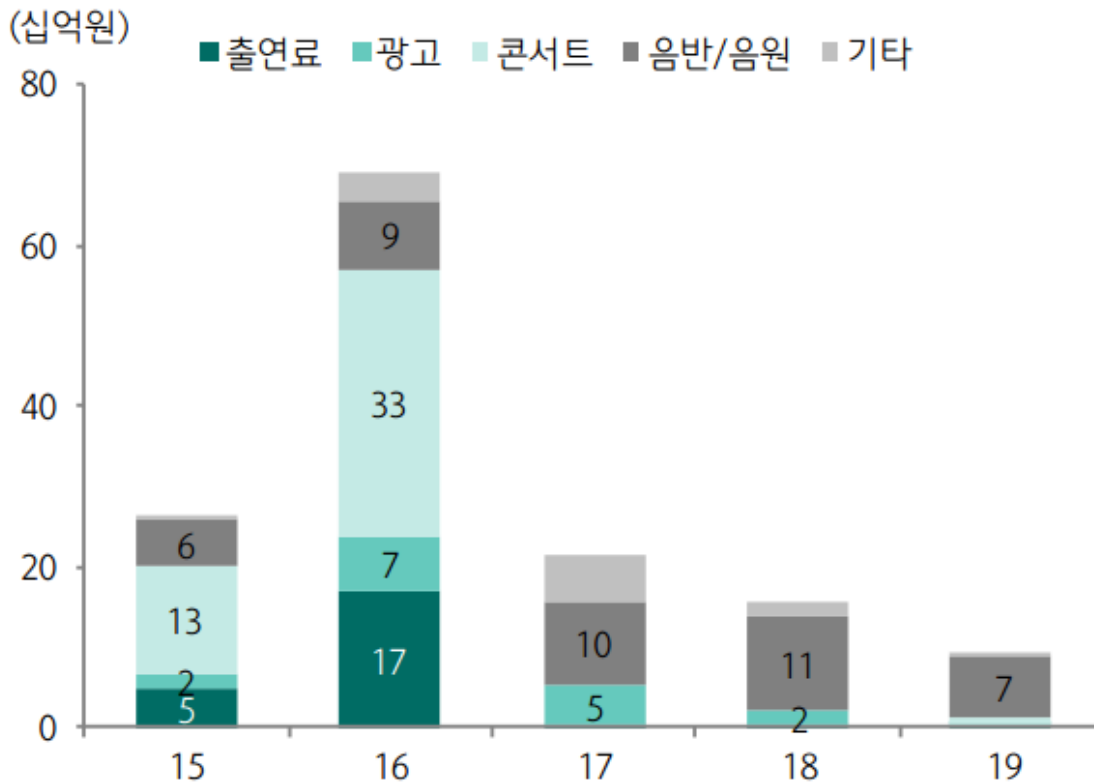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



○ : 하락 포인트

중국의 한한령 : 2017년에 발행된 비공식적인 행정명령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유도한다거나 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그림 8. YG 중국 부문별 매출 추이



공연, 광고, 로열티 매출 급감

자료: YG, 하나금융투자

○ : 하락 포인트

한일 수출규제갈등으로 인한 반일, 반한 감정 고조

JYP, SM, YG엔터주 모두 일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발표된 7월1일 이후
각각 10%,15%, 10% 하락

원인 : 버닝썬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가치하락세
+
엔터사의 주요 수익원중 하나인 일본활동에 대한 위축우려

투자심리 위축



YG entertainment japan (YG 일본법인)
2019년 3분기까지, 약 17억원 손실.

○ : 하락 포인트

코로나 → 해외 출입국 및 콘서트, 팬사인회 등 오프라인 활동 제한

2020년 3월 19일날, 52주 최저가 (18,950원) 기록



○ : 상승 포인트



9월 1일~19일까지 평균 거래량 : 136594.75

9월 20일 거래량이 이전 2주평균 보다 **14배** 폭증하며 주가가 **7.3%** 급등

Why?

버닝썬 이후, YG의 최대 주주이자 전 대표였던 양현석의
성매매 알선 등 범죄에 대해 '혐의없음' 판결당일날
투자자들에게 **일시적인 매수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됨

○ : 상승 포인트



블랙핑크 선공개곡 how you like that 음원 출시

6월 26일 How you like that 발매일날 33850원 장마감

6월 29일 41000원 장마감 (52주 신고가)

6월 30일 42750원 종전기록

7월 8일 40400원, 2주만에 시총 1100억원 이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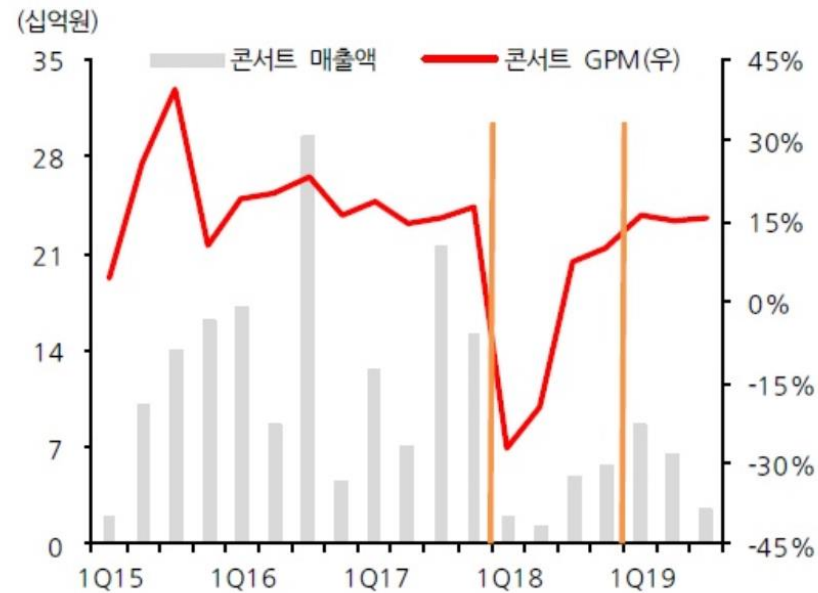
버닝썬 사태 당시, 한달만에 2000억원 이상 하락했던
시총을 2주만에 절반이상 회복시킴

4. POST-BTS 가능성

그렇다면, 블랙핑크가 해외시장까지 선점하는 POST-BTS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

- 블랙핑크의 현 상태 및 인기 요인은?
- BTS의 성공요인?

[그림4] 와이지 콘서트(일본 제외 국내+타국가) 실적 추이



자료: 와이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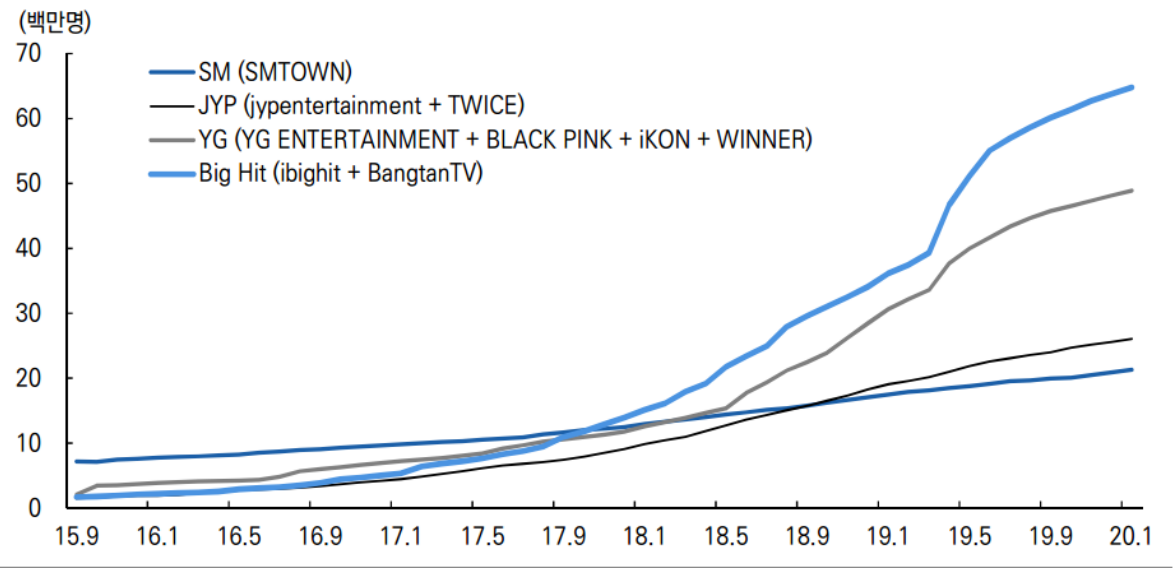
빅뱅의 공백이 시작된 2018년도부터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블랙핑크의 2019년 3분기이후 콘서트 GPM은 빅뱅 수준까지 올라옴

벌어들이는 매출대비 비용이 낮아, 수익성이 높다

*GPM : 매출총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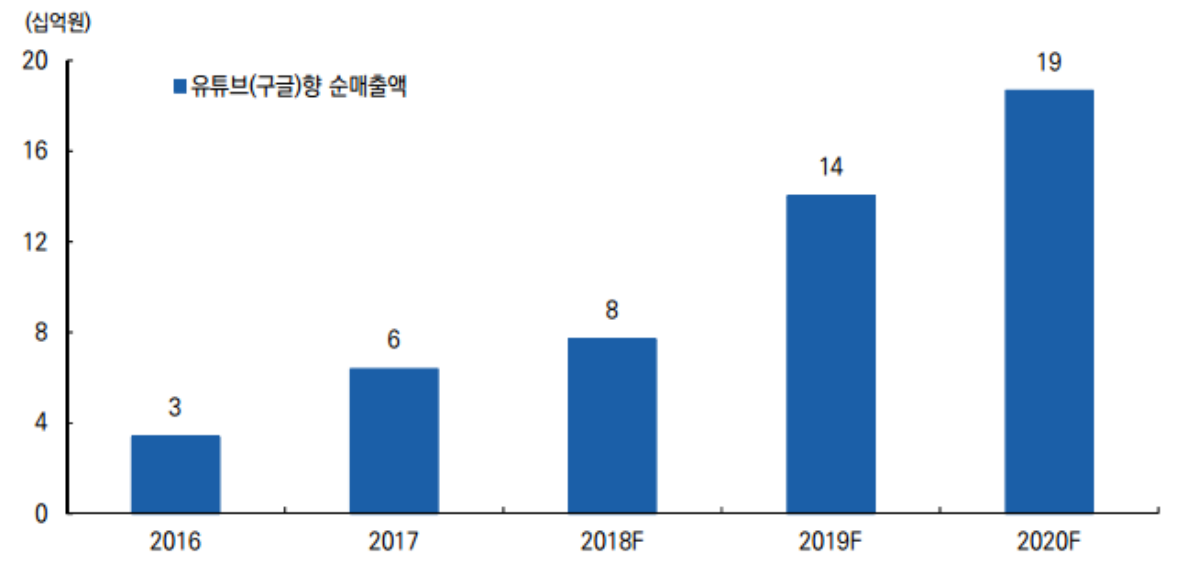
블랙핑크의 지표

그림 4. 기획사별 유튜브 구독: 글로벌 구독자 수 누적은 지속




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7. 와이지 유튜브 순매출액 전망: P(광고 단가)와 Q(조회수, 구독자) 동반 상승에 따른 고성장



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BLACKPINK

총 구독자 수 ?

43,600,000

유튜브 수익 예측[월수익] ?

₩ 1,745,436,873

CPM: ₩ 1,985.16-₩ 3,452.45

제휴 수익 예측[동영상 1개당] ?

₩ 892,111,484

CPM: ₩ 26,972.25-₩ 48,55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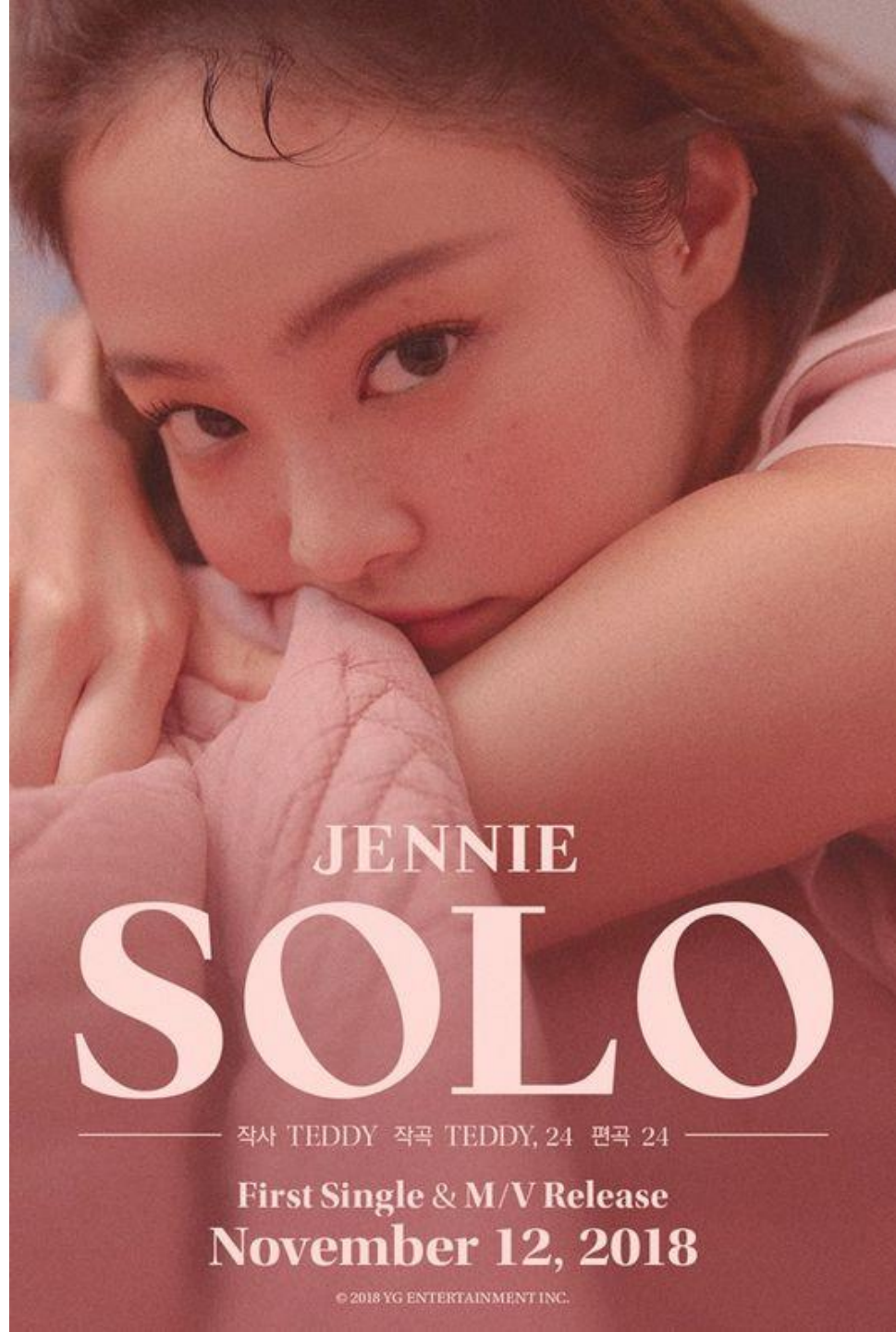
How you like that
BLACKPINK

블랙핑크 앨범 특징

충성도가 높은 10대,20대 여성들을 타겟

YG 대표 프로듀서 Teddy의 프로듀싱 – 2NE1 제작

잃어버린 사랑을 한탄하거나,
상상 속의 완벽한 남자를 갈망하는 가사와는 동떨어짐



[표 3] 글로벌 아티스트 유튜브 MV 조회수 순위 - 2019년 조회수 1~2 위는 K-pop 아티스트

(단위: 억뷰)

2017년			2018년			2019년		
순위	아티스트	조회수	순위	아티스트	조회수	순위	아티스트	조회수
1	Ed Sheeran	78.4	1	Ozuna	64.2	1	방탄소년단	41.2
2	Luis Fonsi	59.6	2	Ed Sheeran	45.0	2	블랙핑크	40.0
3	Shakira	46.6	3	방탄소년단	38.3	3	Daddy Yankee	38.6
4	Katy Perry	46.1	4	Guru Randhawa	33.2	4	Marshmello	36.7
5	J Balvin	42.6	5	Luis Fonsi	31.1	5	Anuel AA	35.8
6	Ozuna	42.0	6	Maroon 5	30.6	6	Ariana Grande	33.8
7	Maluma	41.3	7	Daddy Yankee	30.6	7	Ed Sheeran	33.3
8	Taylor Swift	37.2	8	Bad Bunny	30.5	8	Billie Eilish	32.1
9	The Chainsmokers	34.6	9	Zé Neto e Cristiano	30.0	9	Bad Bunny	29.5
10	Bruno Mars	32.8	10	XXXTENTACION	30.0	10	Marília Mendonça	29.0
11	Nicky Jam	32.7	11	Shakira	29.2	11	Ozuna	28.0
12	CNCO	30.8	12	Marshmello	28.6	12	Maroon 5	27.1
13	Justin Bieber	29.9	13	Nicky Jam	28.2	13	Post Malone	27.0
14	Bad Bunny	28.0	14	Eminem	27.4	14	Guru Randhawa	24.1
15	Enrique Iglesias	27.8	15	J Balvin	27.0	15	Gustavo Lima	23.0
16	Daddy Yankee	25.3	16	Ariana Grande	27.0	16	Maluma	23.0
17	방탄소년단	24.6	17	Maluma	26.5	17	Imagine Dragons	21.6
18	Marília Mendonça	23.7	18	블랙핑크	26.2	18	Karol G	21.4
19	Clean Bandit	23.2	19	Imagine Dragons	25.5	19	Taylor Swift	21.0
20	Charlie Puth	22.5	20	6ix9ine	24.7	20	Shawn Mendes	20.3
60	트와이스	12.4	39	트와이스	18.1	41	트와이스	16.6
68	빅뱅	11.0	99	EXO	9.5	96	EXO	9.5
74	블랙핑크	10.5	113	빅뱅	8.7	154	빅뱅	6.7
90	EXO	9.3	172	GOT7	6.8			
102	싸이	8.6	198	아이콘	6.0			
177	소녀시대	5.4						
184	GOT7	5.3						

Kpop 아티스트의 유튜브 조회수 순위

블랙핑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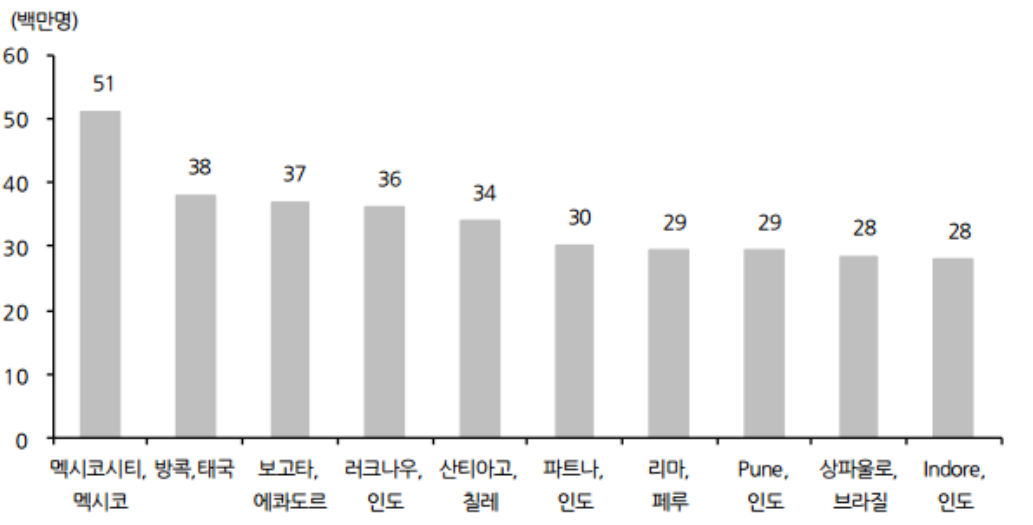
2017년 74위 > 2018년 18위 > 2019년 2위

방탄소년단 :

2017년 17위 > 2018년 3위 > 2019년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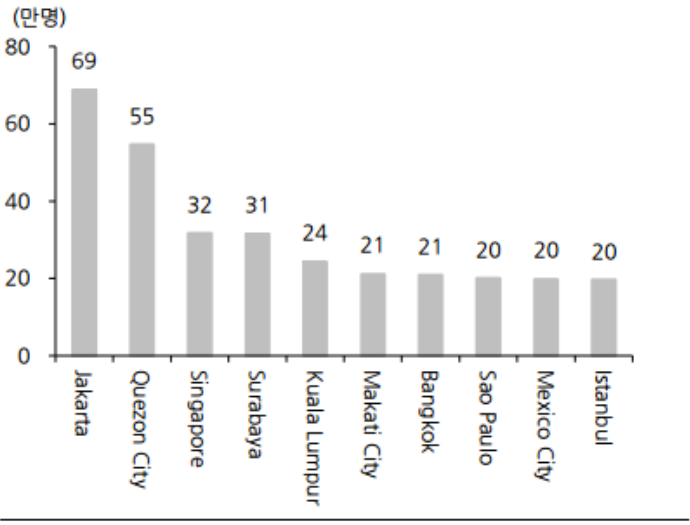
블랙핑크의 지표

[그림40] 유튜브의 주간 조회수(도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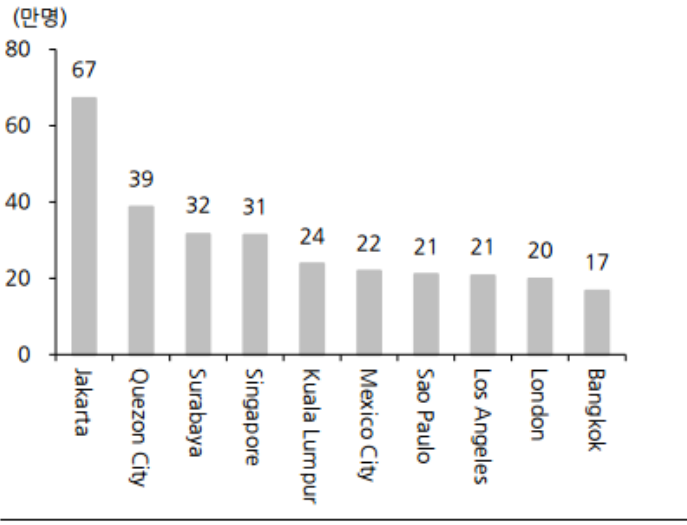
자료: Chartmetric, 한화투자증권

[그림41] 블랙핑크의 도시별 스포티파이 트래픽



자료: Spotify, Soundwave, 한화투자증권

[그림42] BTS의 도시별 스포티파이 트래픽



자료: Spotify, Soundwave, 한화투자증권

출처 : 19년 6월 자료

인도, 동남아시아,남미 등 신흥국에서의 음원 플랫폼 이용 트래픽 증가

블랙핑크 행보

레이디 가가가 속한 인터스코프 레코드(유니버설 뮤직 산하)와 계약

레이디가가와 콜라보 앨범 발매 (Sour Can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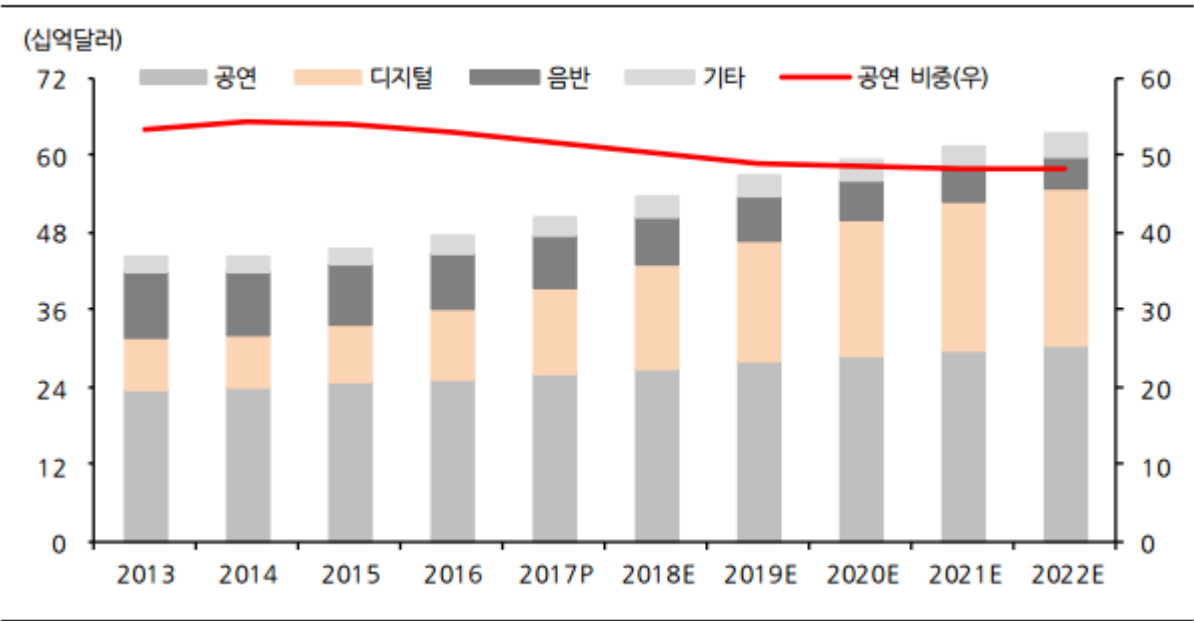
19년도에 북미 최대 대중음악 축제인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참여

19년도 총 8회의 북미 투어 콘서트 진행

해외시장 트렌드 및 BTS성공가도 분석

공연(수익성) 시장의 확대

[그림4] PwC 음악시장 규모와 공연 비중 추이 및 전망



자료: PwC, 한화투자증권

전체 음악시장의 절반은 여전히 공연시장
(미국, 일본, 중국의 음악시장 규모 내
공연 비중은 각각 47%, 43%, 67%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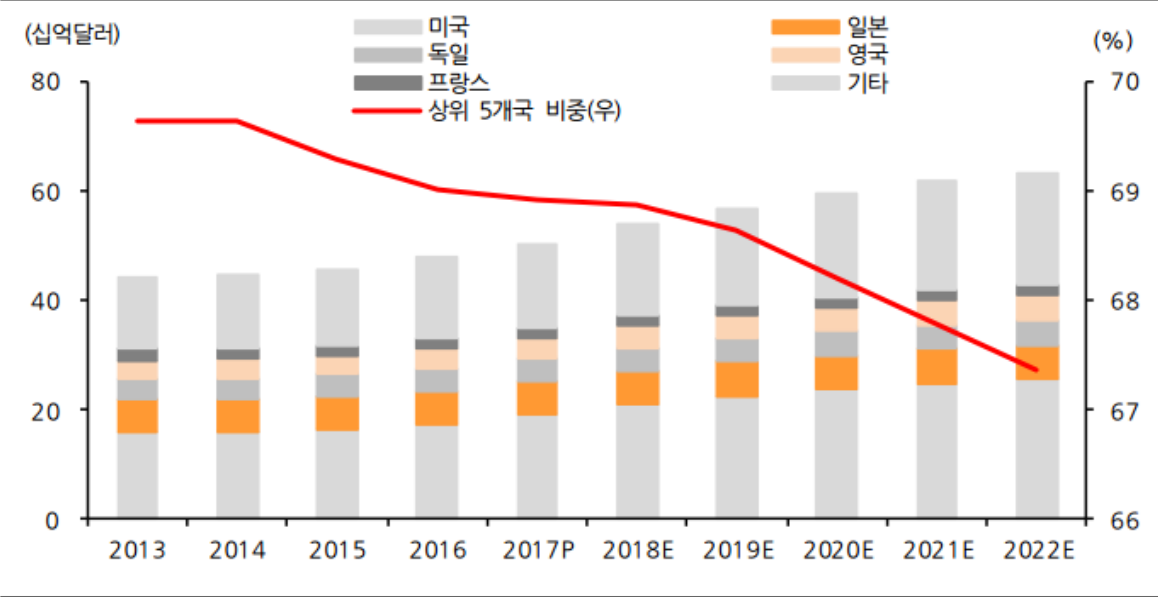
TOP TOURS				
	ARTIST	TOTAL GROSS	TOTAL ATTENDEES	NO. OF SHOWS
1	BTS	\$51,666,038	384,498	8
2	METALLICA	\$28,648,630	290,361	5
3	PINK	\$24,846,060	162,283	10
4	SPICEGIRLS	\$23,638,040	224,739	4
5	ARIANA GRANDE	\$19,877,178	165,523	12
6	ED SHEERAN	\$19,159,407	247,478	5
7	CHER	\$17,166,754	149,534	12
8	HUGH JACKMAN	\$16,908,667	205,219	20
9	TAKE THAT	\$13,423,910	118,427	8
10	ELTON JOHN	\$13,403,967	116,481	10

출처 : 빌보드

BTS의 2019년 5월 한달동안 투어 매출 :
5000만 달러(한화로 약 600억원)

해외시장 트렌드 및 BTS성공가도 분석

[그림10] 국가별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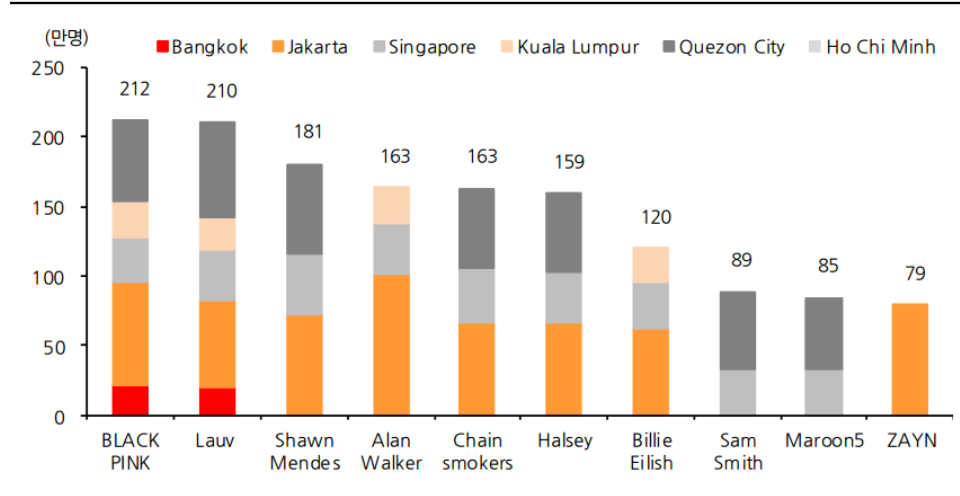


자료: PwC, 한화투자증권

상위 5개국이 시장의 70%를 차지
(특히, 미국, 일본이 절반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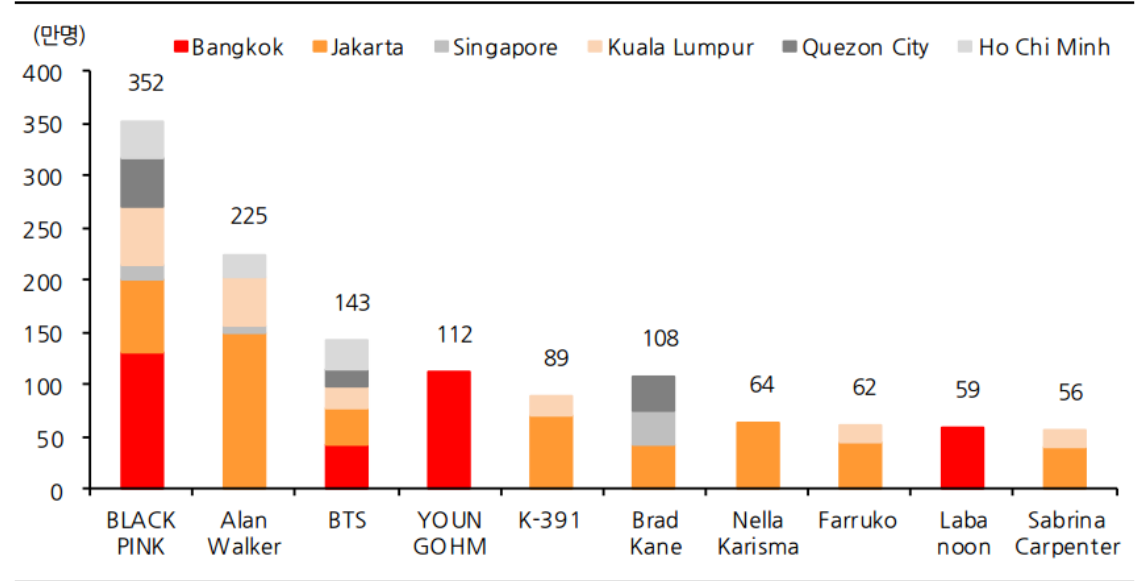
BTS의 매출 공식 = 콘서트 규모와 횟수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 + 규모의 Main Stream으로의 진출

[그림44] Top 10 Artists by Spotify Monthly Listeners - 동남아시아 전체



자료: Spotify, Chartmetric, 한화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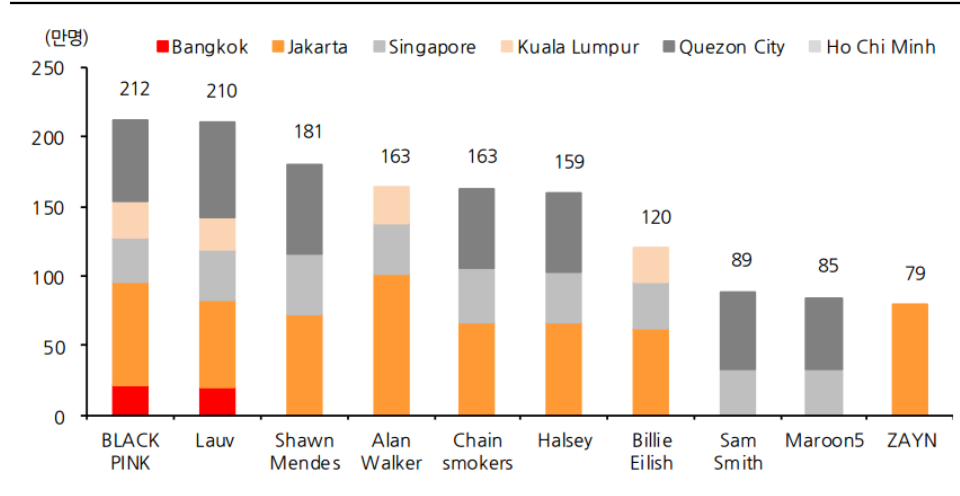
[그림46] Top 10 Artist by Youtube Daily Views - 동남아시아 전체



자료: Youtube, Chartmetric, 한화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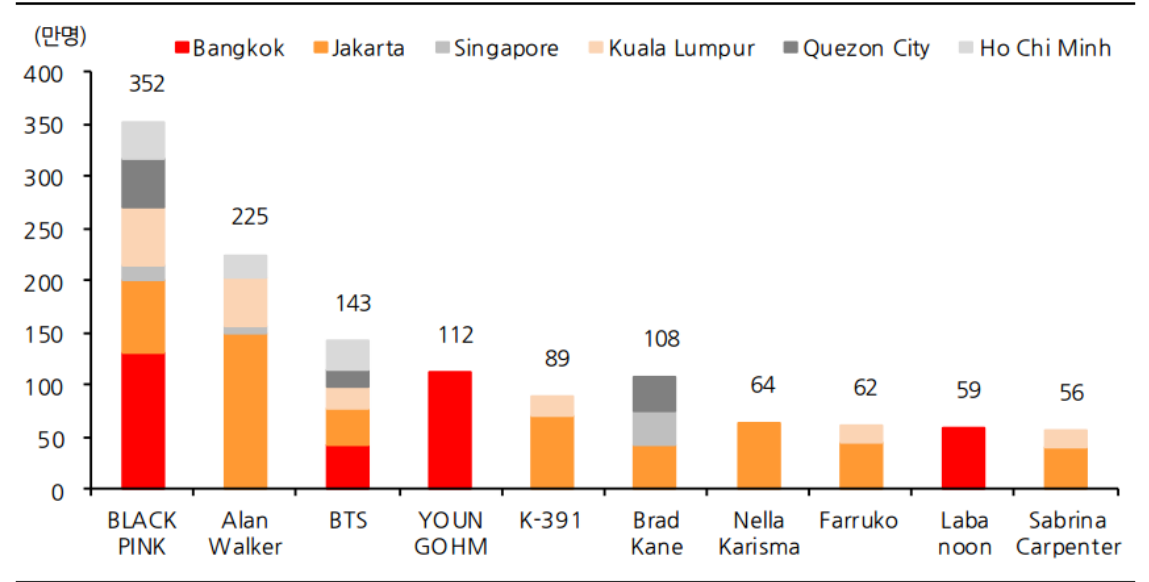
신흥국 트래픽의 상위권은 대부분 k-pop 노래가 장악
BTS와 블랙핑크 모두 **최다 스트리밍 지역**은 한국이 아니라
1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위 필리핀 등으로 신흥국 위주

[그림44] Top 10 Artists by Spotify Monthly Listeners - 동남아시아 전체



자료: Spotify, Chartmetric, 한화투자증권

[그림46] Top 10 Artist by Youtube Daily Views - 동남아시아 전체



자료: Youtube, Chartmetric, 한화투자증권

신흥국에서의 높은
Kpop트래픽 집중도



광고주들의
관심도 상승



대형플랫폼은
kpop콘텐츠를
활용도 증가



아시아와 북미 등
main stream시장
으로의 연결

* BTS 관련주 차트를 통한 상승 및 하락 포인트

*디피씨는 100% 자회사인 스탁인베스트먼트가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에 1,000억원 대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며 빅히트 관련주로 분류



투자 그래프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아티스트 앨범 발매이후, 투자자들의 매도성향 및 주가 하락 시점

엔터주 특성상, 인적 자원에 대한 불안정성을 수치화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연의 수익 배분구조 문제

팬덤의 특성 파악

감사합니다

- KPOP시장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YOUTUBE시장의 거대한 성장을 통해 유튜브 계정과 관련된 수익이 엔터사의 안정적인 재원으로써 자리매김. 이는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과도 관련된 부분
- BTS의 전세계적 성공 이후, 투자자들은 POST BTS를 물색하면서 엔터주에 대한 기대또한 높아지고 있는 중.
- 특히, yg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앨범 발매이후, 유튜브계정 구독자 급증, 조회수부문에서 기네스달성, 빌보드 차트인 등 뜨거운 반응으로 인해 yg엔터주에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음.

- 플랫폼시장(인스타그램, 유튜브, SPOTIFY등)이 확대함에 따라 각 엔터사의 새로운 그룹 또는 새로운 음원 발매 등이 주요 엔터사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
- 엔터주의 특성상, 코로나와 한한령 등 사회, 환경적인 변수에 취약한 측면을 보임 반면에, 소속 연예인의 활동 특히, 해외시장에서의 성과가 주가에 즉시 반영되는 편